

- 주요 뉴스: 중국의 경제봉쇄 완화빅테크 규제 종료 가능성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시사
 - 골드만 삭스, 미국의 경기 연속룩이 쉽지 않지만 여전히 가능
 - 블룸버그 설문조사, ECB는 7월 및 9월 예금금리의 0.25%p 인상을 예상
 - 중국 5월 차이신 서비스 PMI, 전월비 상승. 확장의 기준 50은 3개월 연속 하회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 등이 상충
주가 상승[+0.3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1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 강화
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및 은행관련주 강세 등으로 0.9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금주 말 5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경계감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2%, 0.8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가능성 등이 영향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54.4원, +11.8원) 1.0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6/6일	6/3일	전일대비			6/6일	6/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21.4	4,108.5	0.31%	국채 금리 10y	미국	3.04%	2.93%	11bp
	유럽	444.12	440.09	0.92%		독일	1.32%	1.27%	5bp
	중국	3,236.4	휴장	1.28%	CDS 5y	한국	44bp	46bp	-2bp
	일본	27,916	27,762	0.56%		중국	69bp	71bp	-2bp
	한국	휴장	2,670.7	-	위험 지표	EMBI+	-	377	-
환율	달러지수	102.40	102.14	0.26%		VIX	25.07	24.79	1.13%
	유로화	1.0696	1.0719	-0.21%		WTI유	118.50	118.87	-0.31%
	엔화	131.88	130.88	-0.76%	원자재	구리	443.5	447.2	-0.83%
	위안화	6.6539	휴장	0.10%		금	1,841.4	1,851.2	-0.53%
	원화	휴장	1,242.7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중국의 경제봉쇄 완화빅테크 규제 종료 가능성,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시사

- 당국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이 감소하는 가운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의 봉쇄조치 완화를 지속.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정상화되고 있으며, 베이징에서는 일반식당도 정상 영업을 시작
- 다만 상하이에서 기업들이 6/1일부터 정상 조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. 주요 매체들은 향후 2주간 상하이 항만과 공항의 이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한편 WSJ에 따르면, 당국은 차량호출기업 DiDi Global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허용할 방침. 이 외에 Full Truck Alliance와 Kanzhun 등에 대한 조사도 종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
-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 전망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. 특히 규제강화로 기업의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고,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, 정부는 더욱 경제성장에 집중
- 6/6일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주가 상승(상하이 지수 +1.28%). Premier Miton Investors은 정부의 최근 정책들은 경제 관련 큰 차이를 만들고 국제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. 다만 증시가 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골드만 삭스,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지만 여전히 가능

-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개선되고 있어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. 또한 양호한 고용여건과 가계의 대차대조표 등으로 단기 측면에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
- 한편 JP Morgan의 Bruce Kasman도 미국 경제가 단기간 내에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. 특히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지만,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
- Deutsche Bank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거의 없으며, 다수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연착륙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

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, 인플레이션 제어는 대중 관세 인하보다 복잡한 문제

- 타이 대표는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. 한편 인플레이션의 경우 모든 미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, 이와 관련된 원인과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고 발언

■ 영국 총리, 신임투표에서 승리. 총리직 유지

-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불신임 투표에서 359명의 의원들 가운데 211명의 지지를 얻어 총리직을 유지. 다만 찬성표(59%)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. 존슨 총리는 최근 코로나 19 봉쇄 기간에 파티 참석으로 불신임 투표에 직면

■ 블룸버그 설문조사, ECB는 7월 및 9월 예금금리의 0.25%p 인상을 예상

-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3/4분기 2회의 금리인상을 통해 예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. 한편 연간 물가상승률의 경우 금년 말에도 6%를 넘어서고, 내년에야 4%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

■ 중국 5월 차이신 서비스 PMI, 전월비 상승. 확장의 기준 50은 3개월 연속 하회

- 해당 지수는 41.4로 전월(36.2) 대비 상승. 코로나 19 관련 경제 봉쇄가 완화되고 있으나, 향후 서비스 부문 활동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. 세부 항목 기준으로는, 신규 수출수주 등이 전월비 하락
- Caixin Insight Group의 Wang Zhe는 팬데믹 영향으로 기업의 신규고용이 여전히 더디며, 이에 서비스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

■ 일본은행 총재, 흔들림 없이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방침

- 구로다 총재는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경기부양이라고 강조. 일본의 경우 물가상승이 단기적 요소에 의한 영향이 크기에, 미국 혹은 유럽과 달리 인플레이션과 경기부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6/7 현지시각 기준)

-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, 미국 4월 무역수지 및 4월 소비자신용 잔액
- 유로존 6월 Sentix 투자신뢰, 독일 4월 공장수주, 일본 4월 가계소비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과 유로존의 실질 금리 차이 축소, 더욱 심화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Mind the transatlantic bond gap)

- 물가상승과 통화당국의 대응으로 미국과 유로존 채권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.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는 5월초 이후 큰 폭 축소(2.0%p→0.3%p). 장기 국채는 기준금리, 기대 인플레이션을 등을 반영하며, ECB의 통화정책 전환 움직임이 이를 설명
- 유로존은 미국에 비해 재정지출에 좀 더 적극적이며,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잠재. 이에 ECB가 당초 예상보다 좀 더 강력한 통화긴축이 필요. 이는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차이의 추가 축소 및 유로화 절상을 유도할 전망

■ 미국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, 경기 연착륙 가능성 증가를 시사 - 블룸버그

(The Path to a Soft Landing Is Getting a Little Easier)

- 그 동안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. 5월 ISM 서비스 경기지수는 소폭 둔화. 그러나 제조업 및 서비스 경기지수 모두 확장/수축의 기준인 50을 상회
- 또한 5월 신규고용이 둔화하는 가운데 연간 임금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5%를 상회. 이러한 결과는 경기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전망에 부합. 다만 임금 등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물가가 상승하는 점은 위험 요인

■ ECB의 역내 국채수익률 스프레드 축소 노력, 경제에 긍정적 - Financial Times

(The ECB embraces its responsibility to keep the euro together.)

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, 정책당국의 판단 오류 - 블룸버그

(The Biggest Threat to the US Economy Is Policy Makers)

■ 미국 회사채 매입 증가, 저가 매수 유입 및 주가 하락 등에 기인 - WSJ

(Investors Get Back Into Corporate Bond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